



영화 '프란시스 하' (왼쪽)와 '어디갔어, 버나뎃' 스틸컷.



휴대폰 셀카 뉴스 응모하세요

KBS광주 신개념 디지털 뉴스 '세로이슈' 공모전

KBS광주방송총국 뉴미디어추진단은 유튜브 KBS광주 채널의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기념해 'KBS광주 세로이슈 공모전'을 실시한다.

알리고 싶은 일상이나 새로운 현상, 개발한 아이디어, 개선됐으면 하는 사회문제 등을 세로형식의 휴대폰 셀카메라로 촬영해 응모할 수 있다.

세로이슈는 KBS기자들의 현장 셀카메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로 지난 7월부터 유튜브 KBS광주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공모전은 연령과 출품 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또 수상작은 유튜브 KBS광주 채널에 업로드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 /오지현 기자



올 가을 'F등급' 영화들 찾아온다

(여성이 연출이나 각본·배역 맡은 영화)

지난여름 국내외서 호평받은 여성 감독의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 '69세' 등의 바통을 이어받아 올 가을에도 'F등급' 영화들이 줄지어 관객들을 찾아온다. 'F등급'은 여성(female)이 연출이나 각본, 주요 배역을 맡은 영화에 붙여진다.

셀린 시아마, 그레타 거윅 등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감독의 전작들과 주요 영화제 초청작, 주목받는 여성 배우들이 모인 신작 등 다양한 여성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은 아씨들'의 그레타 거윅 감독이 주연하고 공동 각본에 참여한 '프란시스 하'가 오는 24일 6년 만에 재개봉한다.

'결혼 이야기'의 노아 바움백 감독이 흑백으로 연출한 영화는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스톨입골살 프란시스(그레타 거윅)의 홀로서기를 그린다.

무용수로 성공하겠다는 꿈은 거창하지만 몇 년째 평범한 연습생 신세인 프란시스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애인과 헤어지

'프란시스 하' '어디갔어, 버나뎃' 등 주목받는 여성감독 재개봉작·신작도

고, 룸메이트마저 독립하자 일상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레타 거윅은 이후 '레이디 버드', '작은 아씨들'을 연출하며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으로 성장했다.

다음 달 8일 개봉하는 '어디갔어, 버나뎃'은 '캐롤'의 케이트 블란쳇과 '비포' 시리즈, '보이후드'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뉴욕타임스 84주 베스트셀러에 오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한때 건축계의 아이콘이었으나 현재는 사회성제로의 문제적 이웃이 된 버나뎃(케이트 블란쳇)이 갑자기 FBI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

별상을 받고 최근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매진을 기록한 '프록시마 프로젝트'는 10월 15일 개봉을 확정했다.

'무스탕'으로 세자르상 각본상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 감독 엘리스 위노커가 연출하고 에바 그린이 주연한 '프록시마 프로젝트'는 유럽 우주국의 '프록시마 프로젝트'로 화성에 가게 된 우주비행사 사리가 지구에 남겨 되는 딸 스텔라를 향해 러브레터를 전하는 스페이스 드라마다.

고아성, 이음, 박해수 등 1990년대생 배우들이 모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5년 을지로를 배경으로 토익 600점을 넘겨 대리가 되기 위해 회사 토익반에 모인 8년 차 고졸 말단 사원 동기들의 이야기다. 10월 개봉 예정이다.

제71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작인 '태양의 소녀들'도 10월 개봉한다.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만행으로 참격을 당한 아지디족 여성들이 총을 들고 맞서 싸웠던 실화를 다뤘다.

프랑스 여성 감독 에바 허슨은 프랑스 중군 기자 마틸드가 아지디족 여성 전투부대 '걸스 오브 더 선'과 함께 하는 이야기로 담았다.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자 각본상을 받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국내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셀린 시아마 감독의 '걸후드'도 오는 11월 12일 개봉을 확정했다.

'걸후드'는 제67회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을 비롯해 세계 16개 영화제 2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작품으로, 성장 3부작 중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사회적 압력 속에 놓인 소녀들이 주인공인 '걸후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마리엘이 운명처럼 세 친구를 만나 자신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BTS, 미국 아이하트라디오 축제 피날레 장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유명 음악 축제인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에서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다.

방탄소년단은 18일(현지시간)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 아이하트라디오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축제에서 얼리사키스, 미고스, 콜드플레이 등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진행자는 "다음 그룹은 지난 여름 75만 명의 시청자를 모아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역사상 최대 시청자 기록을 깨고, 신곡으로는 유튜브 사상 24시간 내 최대 시청자 기록을 갱신"이라며 방탄소년단을 소개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공연에서 최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한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총 네곡을 20분간 선보였

다. 80년대 미국 거리처럼 꾸며진 세트장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포문을 연 이들은 경쾌한 춤과 노래로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사랑과 치유의 과정을 담은 '메이크 잇 라이트'(Make It Right),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봄날'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을 연이어 불렀다.

방탄소년단은 펑크 팝 사운드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흥겨운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은 아이하트라디오가 매년 개최하는 음악 축제로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방탄소년단은 국내에서 사전녹화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엠넷 '아이랜드' 종영... 그룹 '엔하이픈' 탄생



이희승, 제이, 제이크, 박성훈, 니키, 양정원, 김선우(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빌리프랩 제공

대중성 아쉬웠으나 글로벌서 반향 빌리프랩 소속 그룹으로 활동 예정

글로벌 아이돌을 뽑는 서바이벌 오디션 엠넷 '아이랜드'가 데뷔 멤버 7명을 최종 선발하며 막을 내렸다.

최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엠넷에서 생방송된 '아이랜드' 최종회는 유료 플랫폼 기준 시청률 0.8%를 기록했다.

최종 데뷔조는 글로벌 시청자 투표로 뽑힌 6명과 프로듀서의 선택을 받은 1명으로 구성됐다.

결승 진출 멤버 9명 중 양정원, 제이, 제이크, 니키, 이희승, 박성훈이 시청자 투표 1~6위를 차지해 데뷔조에 안착했고 김선우는 프로듀서의 선택을 받아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케이와 다니엘은 데뷔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종 멤버 발표식에서 공개된 그룹명은 '엔하이픈'(ENHYPEN)이었다. 하이픈(-)이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장부호인 것처럼, 연결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뜻을 담았다.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는 "훌륭한 아티스트로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세대 간을 연결하고, 또 세계가 많이 분열돼 있는 것 같은데 분열된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팀이 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엔하이픈은 CJ ENM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합작회사 빌리프랩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예비 신랑 전진, SBS '동상이몽2' 합류

SBS TV 스타 부부 관찰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한 가수 전진이 프로그램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결혼 소식을 전해 큰 관심을 불러 모은 전진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예비 아내를 물론, 첫 만남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김동욱 PD는 "연예계 최고 주당인 전진을 '주 1회 음주'로 변화하게 한 예비 아내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24시간 아내에게 빠져있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전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전진의 이야기는 다음 달 5일 밤 11시 10분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21일 (음력 8월 5일)



48년생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오히려 낫다. 60년생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72년생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는다. 84년생 복덩이가 제 발로 들어온다.



49년생 연이어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6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73년생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85년생 금전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



50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하라. 62년생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74년생 음주기무를 삼가고 일찍 귀가하라. 86년생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51년생 적절한 선택과 집중만이 살 길이다. 63년생 마음을 비우면 평화가 찾아오리라. 75년생 못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87년생 출고 배고픈 날이다.



52년생 님도 보고 뿔도 땀다. 64년생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76년생 몸은 고달프지만 소득이 없지는 않겠다. 88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41년생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53년생 직장인은 승승장구하겠다. 65년생 확신이 없다면 재검토하라. 77년생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42년생 사람이 곧 재산이다. 54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매사에 조심하라. 66년생 불필요한 대립은 삼가라. 78년생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43년생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55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67년생 꿈을 펼친다. 79년생 의리를 지키면 보답을 받는다.



44년생 지인과 돈거래는 삼가라. 56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8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80년생 죽어 석 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



45년생 지금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5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9년생 힘들면 쉬어가고 막히면 돌아가라. 81년생 원한 바를 얻는다.



46년생 능력을 발휘한다. 58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70년생 아픈 만큼 성숙해 질 것이다. 8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47년생 친구를 서운하게 만들지 말라. 59년생 다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71년생 못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83년생 기대도 못한 월척을 낚는다.